

한 노인의 명상록¹⁾ 1—1945. 10.15

1. 듣자니 조선인들이 민주정부 운영에 관해 거론하는데, 내게는 마치 여섯 살 난 어린아이가 자동차 운전이나 비행기 조종에 관해 거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영국과 미국만이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들이니.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도덕심을 갖추고 있는 독일들이나 논리적이고 지적인 프랑스로조차도 영국인들이 정립한 민주주의의 표준형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남미에 있는 수많은 공화국 중에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라고 지목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조선은 중국이나 만주보다도 민주주의가 덜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조선인들 가운데는 공산주의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도의 정치력과 실용적인 지혜를 가진 영국이 서서히 사회주의정책을 도입해간다면 모를까, 사회주의의 A, B, C, D도 모르는 조선이 어찌 감히 공산주의국가의 경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지난 두 달 동안 복위 38도선 이북에서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후

1) 해방 직후 윤치호는 「한 노인의 명상록」(An Old Man's Ruminations)이라는 영문 서한을 작성해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보냈다. 그는 1945년 10월 15일에 작성한 서한에서 한국인들은 아직 민주주의를 운영해나갈 능력이 없다는 점과 한국이 공산주의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인들을 지도할 유력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자가 구체적으로 이승만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는 또 1945년 10월 20일에 작성한 서한에서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은 좋은 실든 '일본인'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친일파에 대한 사면을 호소했다. 「한 노인의 명상록」은 윤치호가 해방을 맞이한 후에도 일제 시기에 갖고 있던 견해를 그대로 고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윤치호의 종손녀인 번역문학가 윤경남 선생님의 번역문(윤치호 저음, 윤경남 옮김, 『국약』 좌옹 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 1995)을 대부분 참고했다.

견인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공산주의가 조선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따끔한 맛을 보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견했던 바 그대로의 본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약탈과 강탈과 학살을 일삼는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태도와 억압하고 탄압하고 학대하는 일본제국주의 사이에서, 즉 악마와 심연(深渊) 사이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3. 그리브로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조선에 필요한 것은 자애로운 온정주의입니다. 한센 손과 이타적인 헌신으로 일어설 유력자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형식과 구호만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무리와 공산주의의 잔학하고 불합리한 이념으로부터, 교육도 받지 못했고 훈련도 안되어 있는 조선인들을 지켜줄 유력자말입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전형적인 민주주의나 급진적인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정치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종을 자유로, 강탈을 공산주의로 오해하는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4. 조선에 수립될 새 정부가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조선인들은 고유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하며,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한 단계를 새로운 관습을 도입해야 합니다.

설입니다.

이런바 친일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또 자유는 곧 무법이며 공산주의는 곧 강탈이라고 믿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애국자’들의 공갈 협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정치행위자 보편적 정의로서 일 반사민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추방된 조선인들 가운데 다수는 다방면에 걸쳐서 종전의 신장들로부터 효율성과 규율을 배워왔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과 조선의 비중에 요구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재능은 조선의 새 정부 지도자들에게 크게 유용할 것입니다.

2.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힘과 용맹성을 가지고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조 선을 해해내더라도 한 것처럼 어릴 가나 으스대며 다니는, 자칭 구세주들 의 꼴이란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은 아둔하거나 수치심이 없는 — 아마도 그들 다인 — 사람들인지라, 조선의 자유는 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 유만큼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런바 그 ‘해방’이란, 단지 연합군 승리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온 것 뿐입니다. 만일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허세와 자만에 찬 ‘애국자’들 은 어떤 사람이 큰 지팡이로 일본을 내쫓을 때까지 계속해서 동방요배를 하고 황국신서시를 읊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허세와 자만에 찬 ‘애국자’들이 일본을 몰아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어떤 이변에 의 해서 일본이 다시 조선을 탈환한다면, 이 허세와 자만에 찬 ‘애국자들이 일본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 허풍쟁이들은 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파 리처럼, 다시 말해서 달리는 마차 위에 내려앉아 있으면서 ‘이 마차는 내 힘으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외치는 파리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뿐입니 다.

우리는 해방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 행운을 고맙 게 여겨야 합니다. 잃었던 보석을 되찾은 듯한 은혜를 입은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소한 개인 적 야심과 당파적인 음모와 지역간의 증오심일랑 모두 묻어두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 각계 각층의 일본인 엘리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고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는 유능하고 유용한 이 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과연 누가 독선적인 비방자들일까요? 바로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이 ‘1945년 8월 15일 정오’까지만 해도 학교, 교회, 공장, 정부, 큰 산업체, 백화점,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공식석상에서 동방요배를 하고, 황국신서사를 되보고, 친황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창 씨개명을 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친일파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 들은 다만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감옥에 가야만 했으니까 요. 그렇다면 누가 남들에게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 유가 있습니다. (1) 불미스러운 자기들의 과거를 감추고자 조선인들을 속이 기 위해서입니다. (2) 정당과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근심과 공포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일파라고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일입니 다. 일본에 병합되었던(1911년¹⁾부터 1945년까지) 34년 동안 조선의 위상은 어땠습니까? 독립적인 왕국이었나요? 아니요. 조선은 일본의 일부였고, 미 국 등 세계 열강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조선인들은 좋은 실은 일 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신민으로서 ‘조선에서 살아야만 했던’ 우 리들에게 일본 정권의 명령과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 어떤 대안이 있었겠 습니까? 우리의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딸들을 공장에 보내야만 했는 데, 무슨 수로 군국주의자들의 명령과 요구를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러므로 누군가가 일본의 신민으로서 한 일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

1) 1910년을 착각한 모양이다.

지정학적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민중의 무지와 당파간의 불화 속에서는 우리 조선의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열되지 말고 단결해야 합니다.

윤치호 가계도

해평윤씨 가문

좌옹(佐翁) 윤치호(尹致昊)는 대원군 집정기인 1865년 1월 23일(음력 1864년 12월 26일) 충남 아산군 둔포면 신행리에서 해평(海平, 지금의 경북 산) 윤씨(尹氏) 용렬(雄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고려 후기에 무신으로 활약한 해평윤씨의 시조 윤군정(尹君正)의 21세손이 된다. 그의 가문의 내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윤치호의 선대는 고려 후기인 13세기 중엽에서 14세기 말에 이르는 150여 년 간에 걸쳐 1세에서 5세까지 모두 종2품 이상의 고위관직을 제수받고 신홍 귀족가문으로 성장했다.

둘째, 윤치호의 선대는 조선 초기 14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150여 년 간에 지방관, 더 나아가서는 하급 무인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셋째, 윤치호의 선대는 조선 중기 16세기 초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230여 년 간에 걸쳐 15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3품 이상의 고위관직에 올랐을 만큼 명문 양반가문으로 부상했다. 특히 12세, 다시 말해서 윤치호의 9대조가 되는 윤두수(尹斗壽)는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도승지, 대사헌, 좌의정 등을 거쳐 전란 중이던 1598년에 영의정에 오르면서 해평윤씨의 중흥을 신도했다.

넷째, 윤치호의 고조, 증조, 조부는 조선 후기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100여 년 간에 걸쳐 아무런 관직을 갖지 못하고 지방으로 이주해 향반으로 불락했다.

다섯째, 윤치호의 부친 윤응렬(尹雄烈, 1840~1911)은 무과에 급제한 후